

SAMJONGInsight

삼성KPMG 경제연구원

Issue 17 • 2009

Thought Leadership

- C**risis –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 H**elp – 세계적 공조를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부양
- A**cquisition –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M&A와 기회
- N**ew trade – 신 국제통상환경과 우리 기업의 선택
- G**reen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의 대안
- E**nergy – 미래를 위한 투자, 에너지 · 자원 확보

Upcoming Issues



Issue 17 • 2009

SAMJONGInsight

Contents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 C**risis –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 04
- H**elp – 세계적 공조를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부양 | 07
- A**cquisition –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M&A와 기회 | 11
- N**ew trade – 신 국제통상환경과 우리 기업의 선택 | 17
- G**reen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의 대안 | 20
- E**nergy – 미래를 위한 투자, 에너지·자원 확보 | 24

Upcoming Issues

삼성KPMG는 Global Business의 주요 트렌드와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삼성KPMG를 포함한 전세계 KPMG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SAMJONG Insight에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본문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ecutive Summary



‘보이는 것, 그 너머(Beyond the Obvious),’ 글로벌 경제위기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다. 하지만 위기의 이면에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숨어 있다. 지금이 바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경기불황의 터널 끝에 만나게 될 기회는 차세대 유망 분야(Next big thing)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선점하고 ‘변화(Change)의 시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나와 나의 기업부터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 변화의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CHANGE’를 키워드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며 2009년 7월 말 별도의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CHANGE -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가제)’(원앤원북스)는 C(Crisis: 위기) → H(Help: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 → A(Acquisition: M&A) → N(New trade: 신 국제통상환경) → G(Green: 녹색성장) → E(Energy: 에너지와 자원)의 순서로 주제를 전개해 나간다.

C (Crisis) -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 개별 기업 또는 개인만의 불행이 아닌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H (Help) - 세계적 공조를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부양

- 세계 각국은 저금리 정책과 함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 중이다. 재정 투입으로 자금이 집중될 분야로는 SOC(사회간접자본), 친환경 사업, 대체에너지, IT(정보·기술), 의료, 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
- G-20(주요 20개국)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를 공고히 하게 됐다.

A (Acquisition) -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M&A와 기회

-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의 국경간(Cross-border) M&A는 위축됐지만,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가 주도하는 국경간 M&A는 활발하다.
- 한국도 국경간 M&A를 펼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겉음마 수준이다. 지금부터 ‘금융, 신기술, 물류, 부동산·건설, 자원·에너지, 녹색산업’ 등 6대 분야에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다.

N (New trade) - 신 국제통상환경과 우리 기업의 선택

- ‘신 국제통상환경’ 하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교역 감소에 따른 피해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 국가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FTA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G (Green)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의 대안

- 최근 미국, EU(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린 금융, 그린 IT 등 녹색성장 분야의 투자가 확대됐다. 또한 온실가스 미규제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 한국 기업도 사회적 기조의 대변화를 놓치지 말고 녹색·청정에너지 기술을 선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 (Energy) - 미래를 위한 투자, 에너지·자원 확보

- 에너지와 자원 개발 분야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M&A에 적극적이다.
-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어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민간 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주도한다. 우리나라 또한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ought Leadership

Crisis -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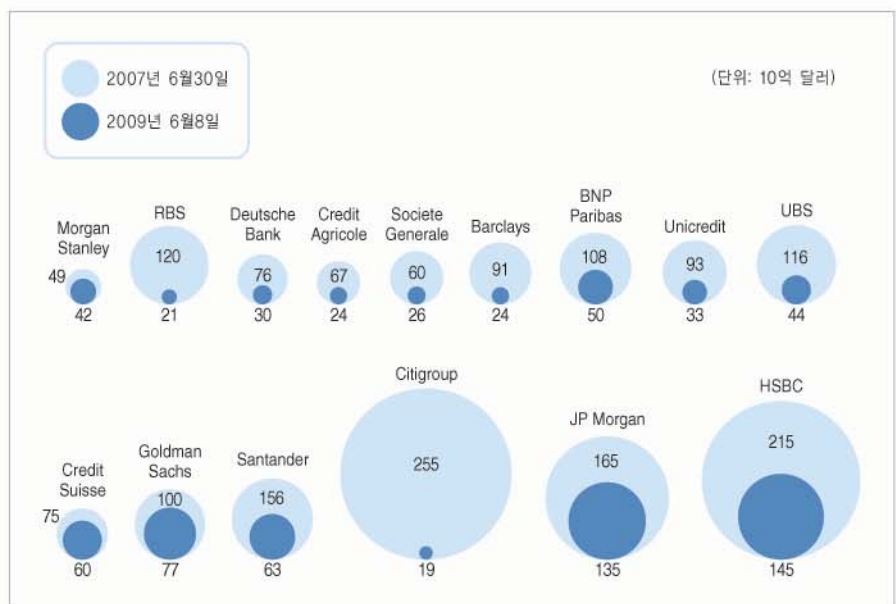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위기와 변화

전세계의 경제와 금융을 선도하던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 파장은 세계의 경제 지도를 뒤흔드는 대지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격으로 현재 세계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변화는 지역차, 시간차가 없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는 분명 '위기(Crisis)'라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최악의 위기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재의 위치를 재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산업의 변화

세계경제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던 월가의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엄청난 부실을 안고, 그 가치가 추락했다. 아래 그림은 글로벌 금융기업의 2007년 6월30일과 2009년 6월8일 각각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것이다.

《 주요 금융기업들의 시가총액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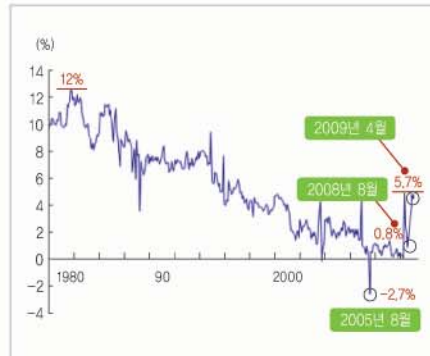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07년 6월30일 미화 2,550억 달러(이하 달러)에 달하던 씨티그룹의 시가총액은 2009년 6월8일 현재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JP모건이나 HSBC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 보이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뿐만 아니라 프라임모기지 부실 등 금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미국 소비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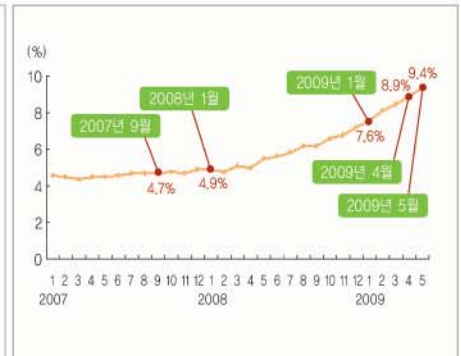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미국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돈을 빌려 소비하는데 익숙했던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이 빚을 갚고 저축을 늘리는 소비절약 행태로 바뀌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내려가기만 했던, 그래서 2005년 8월 -2.7%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2009년 4월 5.7% 수준까지 올라섰다.

《 미국의 개인 저축률 》



Source : Bloomberg

《 미국의 실업률 》

Source :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미국인의 지갑이 닫히고 있는 현상은 미국 내수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지향적이던 미국 소비자의 소비 회복이 지연된다면 전세계 경기회복 속도 역시 더딜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의 금융회사, 자동차 회사 등 수많은 기업은 감원 및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기준 9.4% 수준까지 올라선 미국의 실업률은 당분간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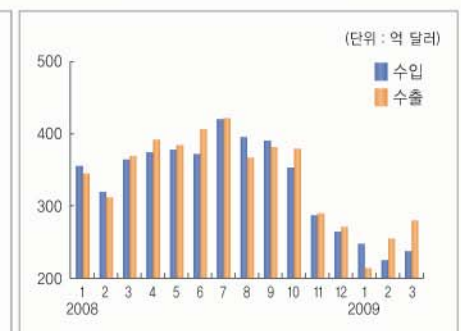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세계지도상의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자. 한국은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마주보고 있다. 한국의 옆에는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한국은 세계경제의 양 축인 중국, 미국의 사이에 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지리적만큼이나 영향을 받는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주식시장(KOSPI 기준)의 변화를 보면 미국, 중국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수출입 동향 역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 한국, 중국, 미국의 주가 변화 》

Source : Bloomberg
Note : 2007년 7월2일 = 100

《 한국 수출 및 수입 동향 》



Source : 한국무역협회

“통화유통속도 떨어져 ...
유동성 문제 여전”

한국의 돈맥경화 진단

돈의 흐름은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다. 개인, 기업, 국가의 구분 없이 돈의 흐름은 경제라는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가 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맥을 짚어보듯이 국내 경제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자금흐름은 크게 M1(협약의 통화)과 M2(광의의 통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1은 수시 입출식 예금 및 현금을 뜻하며 M2는 M1과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통화량의 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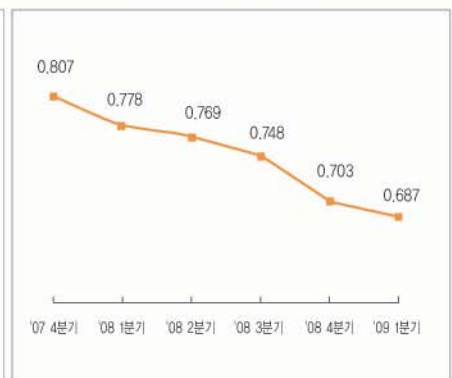
2009년 상반기 한국의 자금흐름 추이는 M1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M2는 증가추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들이 가계와 기업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정부에서 쏜 돈이 금융권에 머물고 기업과 개인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통화 총량 증감률 추이 》



Source : 한국은행
Note : 전년동기대비, 평잔기준

《 통화유통속도 추이 》



Source : 한국은행
Note : 통화유통속도=명목 국내총생산/광의통화(M2)

통화의 유통속도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통화유통속도’를 발표한다. 2009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의 투자활동 역시 저조하여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2009년 3월 말 기준 유보율은 945.54%로 1년 전보다 60.8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 등 생산부문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특징은 경기회복의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지표와 현재상황을 나타내는 후행지표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성급하다. 지금은 문제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위해 원인을 하나씩 생각해 보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Help – 세계적 공조를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부양

경제위기의 구원투수 ‘각국 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계 여러나라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추진하는 가운데, 부양책의 자금투입 분야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섹션 H(Help)에서는 경제위기의 구원투수인 각국 정부의 부양책을 분석하여 ‘향후 포착 가능한 기회와 현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2007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2월16일 FRB(미국 연방준비은행)는 연 1.0%인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인 0~0.25%로 낮춰 현재 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3월에 5%이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2009년 4월9 일에는 2%까지 내렸다. 중국은 2008년 9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5.31%로 인하했다. ECB(유럽중앙은행) 역시 2008년 10월 3.75%였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 2009년 4월 기준으로 1.25%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 외 영국, 스웨덴 등도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며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실업을 증가와 마이너스 성장을 맞고 있고 신흥국의 수출도 감소되는 시점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우선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를 택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금리 또한 빠른 속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과 신성장동력 확보

저금리 정책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세계 각국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유동성 공급, 구제금융 등 금융부문 및 재정부문 모두 포함하여 약 10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크게 금융안정화와 경기부양 두 부문에 각각 6조3,627억 달러, 3조7,025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물경기 활성화 대책은 각 국가별 특성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각국은 단순한 금융안정화나 경기부양에만 그치지 않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투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국이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겨냥한 미래형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주요국 금융안정화 및 경기부양 투입자금 규모 》



Source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주요 국가의 경기부양책

미국 FRB는 신용 경색 및 소비 위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유동성 공급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TAF(Term-Auction Facility: 기간입찰대출): FRB가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사에 경매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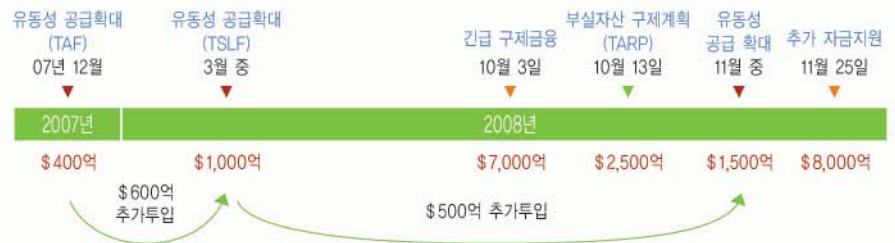
*TSLF(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기간증권대출): FRB의 대출 제도로, 일주일에 한번씩 경매를 통해 국채전문딜러가 보유한 개인 모기지 연계 증권을 재무부 발행 국채로 바꿔주는 것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부실자산 구제계획): 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기부양정책(Economic Stimulus Plan)으로 세금 환급 위주로 경기부양을 시도한 정책

미국의 경기부양책

미국은 금융안정화에 1조9,00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2009년 2월17일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미국 경기부양법안)를 발효시켰다. 총 7,87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 미국 금융안정화 및 경기부양 투입자금 규모 》



Source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미국 정부는 국가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효율증대, 학교의 현대화 및 인터넷 확충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1,500억 달러, 교육·훈련에 1,059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이들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EU는 2008년 3분기의 GDP가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기술적 침체를 공식 선언 받았다. EU집행위원회가 내수진작 및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서 EU기금과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예산으로 3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진작 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을 발표했다. EU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IT부문 투자와 그린 자동차산업 R&D, 에너지효율빌딩, 미래형공장 지원 등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기부양책

일본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주가안정, 금융경색 방지 등을 위한 긴급 단기대책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엔고 현상 지속과 함께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안정화 대책, 중기적인 경기부양대책, 비정규직(파견) 근로자 해고 증대에 따른 실업 및 고용대책 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다. 2008년 9월 이후 두 차례 걸친 경기대책이 금융위기에 대한 긴급 피난적인 정책이었다면, 이후 추가조치는 중장기적인 내수 확대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인프라 건설과 함께 환경, 물류, 의료 부문에 1,93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와 생태 환경 및 농촌지원에 관련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그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철도부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지진피해 복구와 도로, 공항, 전력공급망 보수에 약 4,0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에서 판매되는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전화와 같은 가전제품에 대해 판매가의 13%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가전하향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 재정확대 · 금리인하 ·
금융회사 지원 중”

한국의 경기부양책

우리나라는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에 모두 1,960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적인 메가트렌드(Megatrend)인 녹색성장에 발맞춰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을 실행한다는 전략이다. 경기회복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부문에 서 자생적인 경기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국 금융안정정책 및 경기부양책 》

미 국	■ 개인세금 환급 형태로 보조 ■ 자동차 빅3 지원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교육투자 및 IT인력 양성 등 ■ 기준금리 인하 등
일 본	■ 가계생활 안정 ■ 금융경제 안정 ■ 중소기업지원 ■ 고용증대 ■ 회사채 담보기준 완화 등
중 국	■ 철도부설 프로젝트 승인 ■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책 발표 ■ 농촌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교육 부문에 자금투입 ■ 기준금리 인하 ■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유럽 연합	■ 일괄적인 부가가치세 인하 ■ 주택구입자 및 대체에너지 분야의 고용창출 지원 ■ 미래형 공장지원 및 IT 부문에 투자 ■ 역대 자동차 산업 친환경 R&D지원 ■ 철도 건설 ■ 은행간 거래 정부보증 확대
한 국	■ 건설부문 공적자금 투입 ■ 중소기업 대출 보증 규모 확대 ■ 세계개편을 통한 경기 활성화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기준금리 인하 ■ 고용증대

공 통 점

- I. 구제금융과 재정확대 및 감세
- II.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확대
- III. 금융회사 지원(공적자금투입과 채무보증)
- IV. SOC(사회간접자본) 및 주력 산업별 지원

Source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G-20 공조에 합의

현재의 위기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세계 경제침체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2009년 4월2일에 열렸던 런던 G-20 회의는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서 철저한 국제 공조에 바탕을 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들에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런던 G-20 정상회의 합의 내용 》

● 세계성장과 고용의 회복	1조1,000억 달러 지원 프로그램 • IMF 재원을 7,500억 달러로 확충 •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배분 규모를 2,500억 달러로 확대 • 다자개발은행의 대출규모를 1,000억 달러 추가 확대 • 무역금융을 2,500억 달러로 확대 • 최빈국에 대한 우대 대출을 위해 IMF 보유 금 판매 재원을 활용
● 금융감독 및 규제 강화	
●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 · 투자 증진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	
● 성실한 약속의 이행	

Source : 언론기사를 토대로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G-20 회의는 핵심 의제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IMF 자원 확대를 통한 구제기금 마련과 금융규제 강화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먼저 금융규제 강화 방안으로 헤지펀드 등 전체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할 금융안정위원회 설립,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발표, 왜곡된 평가로 무용론이 제기된 신용평가기관의 등록의무제 도입, 1조1,000억 달러 규모로 IMF 등의 재정 확충과 재정지원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경기부양 방안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반대, 2010년까지 5조 달러의 재정지출과 경제난이 심각한 개도국과 동유럽 국가 지원을 손꼽을 수 있다. 세계적인 공조에도 경기부양의 효과와 회복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불황의 터널 끝에는 경기활성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기침체 이후의 미래 준비 필요”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제공조의 지속여부와 재정적자의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경기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의 효과가 언제,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V자형’ 회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U자형’, ‘W자형’ 회복을 예상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침체에도 언젠가 그 끝이 있다는 점이다. 요즘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회복 시기 예측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경제상황을 기회로 삼아 경기가 회복될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서 특히 자금이 집중될 산업분야는 SOC 및 건설 부문과 친환경 관련 사업과 대체에너지, IT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의료 및 교육부문도 대규모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많은 부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SOC 건설의 활성화는 중장비 · 기계 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cquisition –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M&A와 기회

금융위기로 위축된 국경간 M&A

“아시아를 주축으로 한 국경간
M&A거래는 오히려 증가”

중국과 일본의 공격적인 국경간 M&A

《 M&A 산업 순위 (거래액 기준, 2008) 》

순위	일본	중국
1	의약	금융
2	금융	오일가스
3	보험	전자제품
4	사무용품	기타제조업
5	무역	화학제품

Source : Bloomberg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우수 기업들의 자산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금까지 전세계 국경간(Cross-border) M&A(인수·합병)를 주도해 온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오직 생존을 위한 전략 모색에 급급하여 해외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이 해외 기업을 인수(Acquisition)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본 장에서는 국가별·기업별 국경간 M&A의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투자현황을 고려한 ‘금융위기 속 유망한 6가지 산업’을 도출했다.

M&A 조사업체인 제퍼(Zephyr)에 따르면 2008년 전세계의 국경간 M&A는 총 7,502건과 약 1조 2,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과 대비하면 M&A 거래건수는 30%, 거래규모는 68% 감소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8년 국경간 M&A는 주로 서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아시아 기업들이 북미 기업들을 인수한 사례가 307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아시아 기업들이 서유럽 기업들을 인수한 사례가 전년 대비 34.1% 증가한 289건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와 중국, 일본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경간 M&A를 활발하게 수행했다.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가, 일본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탄탄해진 재무건전성, 인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려는 대기업들의 전략이 밑거름이 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국경간 M&A를 수행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현금자산 위주로 경영체질을 개선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했다. 또한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해 연화는 2007년 대비 23%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외기업 M&A를 위한 실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2008년 일본이 인수한 해외 기업은 191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9년 3월 말 기준 1조9,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안화는 8% 절상되어 전세계 M&A 시장에서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다. 2008년 중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M&A는 거래건수 기준 74% 증가한 511건을 기록했다. 양국의 국경간 M&A 거래액을 살펴보면 일본이 2007년 대비 63% 증가한 459억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은 36% 증가한 296억 달러에 달했다. 거래건수는 중국이 일본을 앞섰지만 거래액은 일본이 중국보다 월등히 큰 것을 볼 때 일본 기업들이 수행한 M&A 거래규모가 중국 기업들이 수행한 거래의 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중일 국경간 M&A-거래건수 》



《 한중일 국경간 M&A-거래액 》



Source : Zephyr,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일본의 국경간 M&A 트렌드: 의학·해외 금융자산에 주목

“우리의 10년 후 목표는 세계에서 개발되는 혁신 신약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일본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히구치 도시히로 과장보좌가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관민(官民) 대화’에서 꺼낸 이야기다.

일본 제약기업들은 초일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 기업 M&A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다. 한편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본의 금융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는 세계 금융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은행과 보험, 금융서비스 분야의 해외 기업 인수 금액이 262억 달러에 달했다.

《 일본의 주요 국경간 M&A (거래액 기준, 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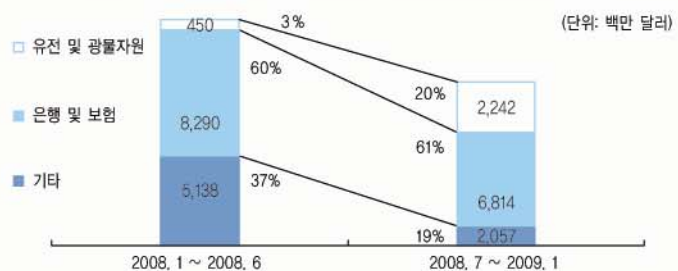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달러)
다케다 (의학)	밀레니엄 제약 (미국)	88억
MUFJ (금융)	모건스탠리 (미국)	80억
신세이뱅크 (금융)	GE Money (미국)	54억
다이치산교 (의학)	란박시 (인도)	46억
시오노기 (의학)	사이얼 파마 (미국)	12억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중국의 국경간 M&A 트렌드: 천연자원·하이테크·제조업·금융산업에 주목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2월1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유 외환은 대외무역과 대외투자에 쓰여야 하고 따라서 충분한 외환을 가지고 해외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선진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CCB(China Construction Bank: 중국건설은행)는 2006년 12월 12억 달러를 들여 미국 BOA(Bank of America: 밴코 오브 아메리카)가 전량 출자한 BOA 아시아본사를 인수했다. 또한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중국투자공사)는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의 주식 3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으며 CDB(China Development Bank: 중국개발은행)는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주식 30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 중국의 국경간 M&A 산업별 분포 변화 (2008~2009. 1) 》



Source : Zephyr,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걸음마 시작한 우리나라의 국경간 M&A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의 심화로 중국 기업들이 인수한 금융회사들의 실적악화가 이어지자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해외 오일 및 원자재, 첨단기술을 보유한 제조회사의 M&A에 집중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중국의 국경간 M&A 통계를 보면 유전과 광물자원에 대한 딜의 규모가 4억5,000만 달러로 전체 3%였으나 하반기에는 20%인 2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은행과 보험관련 해외 기업에 대한 M&A는 2008년 상반기 전체 60%인 83억 달러였으나 하반기는 68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국경간 M&A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경간 M&A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51건에 그쳤고 거래액은 11% 증가해 9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성장세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일본은 24%, 우리나라가 21%로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경간 M&A는 저조하다.

대표적 사례인 LS전선은 2008년 7월 세계 최대 권선(Magnet wire) 업체이자 북미와 유럽에 25개 공장을 보유한 수퍼리어에식스를 인수하며 전선업계 글로벌 3위로 도약했다. 또한 동원그룹은 미국 참치시장 1위이자 시장점유율 38%의 메가 브랜드인 스타키스트의 지분 60%와 경영권 및 미국, 캐나다 및 남미지역 영업권을 3억6,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롯데제과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두고 연간 3,000억원 규모 초콜릿을 생산하며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 9개 지역에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길리안을 인수했다.

《 우리나라의 주요 국경간 M&A (거래액 기준) 》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액(달러)
LS전선 (제조)	슈페리어에식스 (미국)	9억
국민은행 (금융)	뱅크크레딧센터 (카자흐스탄)	5억
동원그룹 (유통)	스타키스트 (미국)	3.6억
롯데제과 (유통)	길리안 (벨기에)	2.1억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투자 유망 산업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투자 유망 6가지 산업을 주목하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위기로 저평가된 해외 기업들을 합병하거나 지분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천연자원 또는 원자재 개발기업, 금융회사,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국에 비해 M&A 성과가 저조한 편이다. 국경간 M&A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자유망 산업 6가지(금융기관, 신기술, 물류산업, 부동산·건설, 자원·에너지, 녹색산업)를 도출했다. 본 장에서는 금융기관, 신기술, 물류산업, 부동산·건설 부문을 살펴보고, 자원·에너지와 녹색산업 부문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한다.

1. 금융기관

일본과 중국 양국은 이미 한발 앞서 저평가된 해외 금융기관 인수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유에프제이 그룹의 모건스탠리 지분 21% 인수, 노무라 그룹의 리먼브라더스 아시아·유럽·중동

“자산 저평가된 해외 금융기업에 투자할
기회 ... 선진 금융기법 배울 수 있어”

사업부문 인수, 중국 투자공사의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주식매입 등이 바로 해당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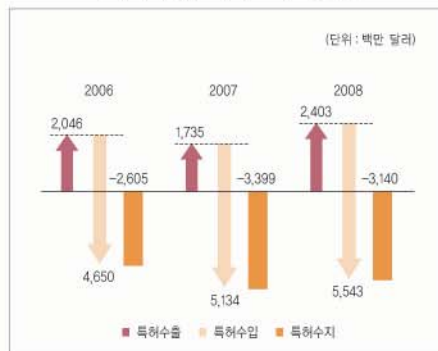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2008년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성사된 국경간 M&A 중 금융산업에 대한 M&A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산이 저평가된 선진국 금융기업에 투자하여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미국의 비은행권 금융회사인 CIT그룹을 살펴보자.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은 기업이지만, CIT그룹은 1908년에 설립한 미국 기업으로 약 5,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50개국 이상에 진출해있으며 총자산 804억5,000만 달러, 매출액 69억9,8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GE캐피탈과 함께 세계적인 비은행권 금융회사이다. 특히 CIT그룹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게 부족한 기술 즉, 벤더금융(제조업, 유통업에 리스 솔루션 제공), 교통 및 운수업 금융(항공과 철도업 등 수송업체들에 대출, 리스, 자문서비스), 소비자 금융(주택모기지, 학자금 대출), 수출입 금융(팩토링, 소매유통회사 매출채권 관리 등) 등의 분야에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61달러에까지 달했던 CIT그룹의 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4월 3달러에 불과했다. 약 2억 달러만 투자해도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선진 금융기법을 배울 수도 있다.

2. 신기술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특허를 외국에 수출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료(특허수출)는 2007년 약 17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08년 24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외국 기업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외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료(특허수입)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했다. 2008년 55억4,000만 달러에 달해 2008년 특허수지는 31억4,000만 달러에 달해, 그 결과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마치 300원어치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100원에 팔고 200원 손해 보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에 이어 5번째 특허수지 적자국이다.

《 우리나라의 특허료 지불 현황 》



《 퀄컴의 매출액과 특허료 수입 》



Source : 한국은행, 퀄컴 홈페이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 모바일반도체 업체 퀄컴(Qualcomm)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뿐만 아니라 WCDMA(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2008년 총 매출 111억 달러 중 특허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약 39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퀄컴 전체 매출액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퀄컴에 지불한 특허료는 5조원에 달한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위력이다. 그러나 2008년 여름 56.37 달러였던 퀄컴의 주가는 2008년 11월 말 29.21달러까지 추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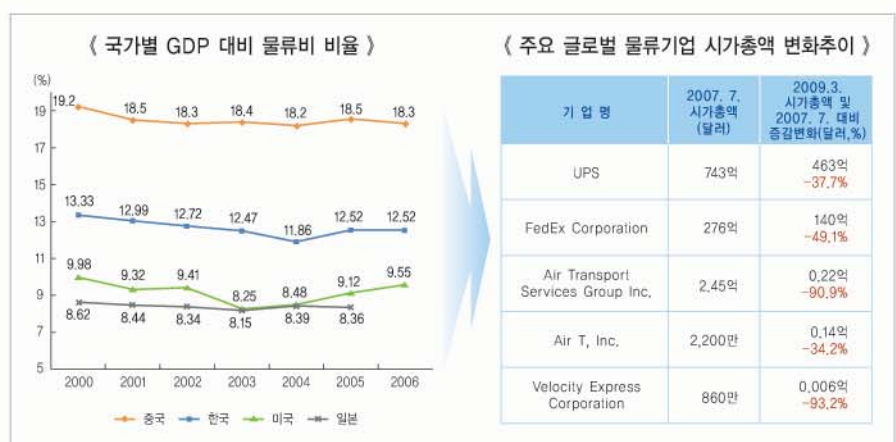
미국의 NOV(National Oilwell Varco)는 드릴 선박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는 2005년 이후 전세계에서 발주된 드릴 선박 34척을 모두 수주해서, 수주금액이 170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드릴 선박의 핵심부품 드릴을 척당 1억 달러에 NOV로부터 사오고 있다. 2007년 현대중공업의 2007년 영업이익률은 11%, 삼성중공업은 5%였던 것에 반해 놀라운 점은 NOV의 2007년 영업이익률은 21%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6월 91달러에 이르던 이 회사의 주가가 2009년 2월 말 26달러에 그쳤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을 눈여겨보자.

3. 물류산업

우리나라의 물류비용 수준은 너무 높다. 우리나라는 100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면 12달러를 물류비로 지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9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물류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 각국은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물류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를 선진화하여 물류비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물류비용이 8~9%대로 우리나라의 12%보다 낮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까진 물류비용이 높다. 하지만 만일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해외의 저평가된 글로벌 물류기업에 투자하며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면,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피에스(UPS)와 페덱스(FedEx)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유피에스의 경우 2009년 3월 시가총액은 2007년 7월 대비 37.7% 하락한 463억 달러를 기록했다. 페덱스의 경우 2007년 7월 대비 2009년 3월 주가는 49% 하락했다. 물류기업들은 바겐세일 중이다. 자산 가치가 하락한 선진국 물류기업들에 투자할 경우 선진 물류시스템을 확보함과 동시에 물류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Source : Bloomberg

4. 부동산 및 건설

다음 중점 투자 대상은 부동산과 건설 분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미국은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사태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건설회사들이 극대

《 미국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시가총액 변화 》

기업명	2007. 7. 시가총액 (달러)	2009. 3. 시가총액 및 2007. 7. 대비 증감변화 (달러, %)
Standard Pacific corp.	9.5억	1억 -89.4%
Ryland Group INC.	13.9억	6억 -56.8%
Meritage Homes Corp.	5.1억	3억 -41%
Hovnanian Enterprise INC.	8.6억	9천만 -89%
DR Horton INC.	51.2억	28억 -45%
Pulte Homes INC.	49.5억	26.7억 -46%
Toll Brothers INC.	33.9억	28.8억 -15%
Lennar Corp.	48.7억	13억 -73%
Beazer Homes USA	5.4억	3천만 -94%

Source : Bloomberg

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국뿐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됨에 따라 과열되었던 세계 각국의 부동산 거품이 제일 먼저 꺼졌다. 미국 유수 부동산 시행사와 건설회사의 주가 또한 대폭 하락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는 익숙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인지도 있는 기업들로 이들이 보유한 토지만도 엄청나다. 직접 해외 빌딩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저평가된 부동산과 건설회사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는 동시에 미국 진출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5. 자원 및 에너지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은 모두 호주, 캐나다, 중남미 등의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6년부터 3년간 에너지 분야 M&A로 캐나다에 77억 달러, 호주에 20억 달러, 중남미에 22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에 3억 달러, 호주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또한 수입 물량 중에서 자국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의 물량 비율을 의미하는 자주개발률은 우리나라가 5.7%로 다른 국가(프랑스 97%, 이탈리아 48%, 일본 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자원 개발 기업들의 가치가 2008년 6월에 비해 2009년 3월 현재 64.5% 감소했다. 역사적으로 전세계 경제성장률과 주요 자원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 관계를 보여 왔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이 주도할 미래에도 기본적인 트렌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E (Energy) - 미래를 위한 투자,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파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6. 녹색산업

마지막 중점 투자 대상은 녹색산업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제 1의 물결(농업혁명), 제 2의 물결(산업혁명), 제 3의 물결(정보혁명)에 이어 제 4의 물결로 녹색혁명, 환경혁명, 기후혁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세계의 국가 및 기업들은 다양한 녹색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및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동시에 다가올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친환경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녹색산업과 관련한 업종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유·화학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뿐 아니라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업종까지도 녹색경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산업은 더 이상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다. 전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분야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 (Green)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의 대안' 파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New trade – 신 국제통상환경과 우리 기업의 선택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 세계적 교역량 감소
- 보호무역주의 확산
- FTA의 증가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1970년대 초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던 것처럼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연례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세계 수출 총액은 16조1,270억 달러, 수입 총액은 16조4,150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총액의 경우 2007년 대비 2%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2009년 세계 수출(물량 기준)이 9%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10%, 개발도상국은 2~3% 감소한다는 것이 WTO의 전망이다. 세계은행 또한 2009년 3월 발간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위기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교역량이 8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을 보면 2009년 4월까지 66개의 교역제한 조치가 각국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고 이 가운데 47개의 조치가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치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의 수단을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구제금융 등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이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관세인상이나 품목별 수입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교역장벽 강화 수단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던 보호무역 배경이 채택, 정상선언문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각국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국제교역 감소에 따른 피해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국가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국들과의 양자 간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오히려 무역자유화의 수준을 높여 교역 확대를 꾀할 수 있다.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WTO에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2009년 2월 기준 197건이다. 이중 FTA는 1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 5개, 1970년대 23개, 19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42개에 2001년 이후 117개가 체결되었다.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이다.

2009년 5월 현재 세계 주요국의 FTA 현황을 보면 체결건수는 칠레가 54개국으로 가장 많고,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가 45개국, 멕시코 44개국, EU 43개국 순이다. 한국의 타결 건수는 5건이고 중국은 5건, 일본 8건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주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간 FTA를 통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신 국제통상환경'을 맞이한 것이다.

뉴 FTA 시대의 영향

한국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15개국과 FTA 체결, 46개국과 협상 진행) 다양한 국가들과 체결된 FTA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무역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량 감소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품목에 1개의 세율이

적용되던 체제에서 각 협정마다 관세율이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관련 제도는 복잡해진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의 수준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 간 자원 재배분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1) 무역규모 확대

FTA 확산 이후 협정국에 대하여 관세 등 무역보호율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으로 협정국가들 사이의 교역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전세계 수출규모는 1965년 1,622억 달러에서 2004년 9조981억 달러, 2008년에는 16조1,27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교역규모 증가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국 간의 교역증대이다.

(2) 제도의 복잡화

신 국제통상환경에서는 하나의 품목에 1개의 세율이 적용되던 체제에서 각 협정마다 관세율이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관세행정의 서비스 및 절차의 범위가 우리 기업이 진출한 국가까지 확장되는 탈국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행정이 다양, 복잡해질 전망이다. 원산지 증명을 할 때에도 칠레, 캐나다, 미국 등은 자율발급제를, 싱가포르, ASEAN은 기관 발급제를 채택하는 등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다양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및 원산지 사후 심사 요청 등 원산지 증명 발급·심사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보안요구사항의 강화

9·11 사태 이후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안보 이슈에 상당히 민감해졌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통관절차에 다양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면 교역량은 증가한 만큼 이들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사항의 수준도 상승하게 된다.

(4) 산업간 자원 재배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EU 등 FTA 사례를 통해 무역과 투자의 촉진, 자원 배분의 효율성,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경우에도 경제통합 이전인 1990년초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5년 관세동맹으로 1999년 529억 달러에 달했다.

기업의 핵심역량, 경영전략도 변화해야

FTA 체결국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기업은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과 직접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FTA 시대에 맞도록 기업의 핵심역량, 경영전략도 변화되어야 한다. FTA가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도 '세계 시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패러다임'을 통해 '자유, 개방, 경쟁'의 가치를 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해 지금까지는 주요 생산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을 꼽지만 이제는 지식, 정보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확고히 뿌리내릴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는 다른 뉴 FTA 시대에 맞는 글로벌 경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FTA 협정에 따라 업종별로는 관세철폐에 대한 특실이 다르겠지만 복잡해지는 제도는 우리 기업의 사업환경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수출지향적 한국의 경제와 기업은 FTA 체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속 가능경영을 위해, 글로벌화 전략 수립시 반드시 FTA를 활용해야 한다.

FTA를 활용한 기업의 사업모델 구축시에는 FTA 체결국간 관세율 인화와 체결국 및 미체결국간 관세율 격차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FTA 특허관세율을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의 충족과 국내외



기업의 협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최적화시키기 위해 관세, 원산지 기준 및 국제무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또한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관세 혜택 및 이윤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FTA 환경하 기업의 FTA 활용 증대 방안'으로는 첫째, 수출입업체와 관련이 있는 FTA별 원산지 기준,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FTA별 특혜 요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은 FTA에서 얻는 효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구매처의 변경, 한국 내 생산활동의 증가, FTA 협정상대국에서 원재료 구매, 역외가공, 해외 생산기지·공정의 이전 등을 계획해야 한다. 이는 단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 미국 혹은 EU와의 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라 많은 기업들이观望할 뿐이지만, 현재 관세청, 무역협회 중심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된 바 있고, 지식경제부 역시 이를 산업별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FTA 효력이 발휘된 이후 저절로 관세율이 0%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규제준수(Compliance)의 시작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FTA에서 0%의 관세특혜를 누리려면 FTA에서 전용하는 원산지증명·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회사의 원재료 구성 및 그 원재료의 원산지별 단가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된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회사의 일반적인 원가 계산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 수가 많은 기업은 보통 FTA 원산지 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곤 한다. 필요한 경우 FTA 원산지 계산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해당 전문가는 단지 관세법(품목분류·관세평가 등)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원가계산, 회사의 데이터흐름을 알면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셋째, FTA 원산지 확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거래구조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 해외 수입자는 한국 기업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구비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 구매선 변경으로 압력을 넣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조립산업은 그 특성상 어느 생산단계에서라도 한국산도 아니고 FTA 협정국산도 아닌 비역내산원재료가 추가될 수 있는 산업으로, FTA 원산지 미충족 위험에 민감한 산업이다. 한국 기업 간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서로 원산지확인서를 주고받는 것이 법제화 되어가고 있다. 아직은 상위업체의 압력이라고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이나 EU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반발이 점차 적극 협조의 문화로 바뀌어갈 것이 틀림없다. 수출자와 부품공급자간의 상생을 위해 수출이 증대되어야 하는 당위적인 명제가 한국 기업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한국 내 수거래의 원산지 확인이 원활해진다. 아울러 그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 이미 익숙해진 그 습관으로 해외의 수입자들에게도 유효한 원산지증명·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FTA 환경하 기업의 FTA 활용 증대 방안'의 이행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수출 능력이 배가될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다.

Green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의 대안

위기 극복을 위한 뉴 패러다임 '녹색성장'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녹색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녹색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 수립에 여념이 없다. 녹색산업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다가올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일찌감치 '지속가능경영', '친환경경영'에 무게를 싣고 기후환경 변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업종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환경 단체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정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 기업뿐 아니라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업종까지도 녹색경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등장한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유가상승 및 에너지원 수급의 불균형,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급증 문제 등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생활 주변에 파급될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상한 글로벌 패러다임이다.

《 녹색경제(Green Economy) 부상 배경 》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특히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행동강령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저탄소 사회에서 나아갈 방향 제시를 위한 녹색 비전 수립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대응 체제 구축
- 녹색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성장엔진 시동

세계적인 경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er)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는 2007년 10월 하버드비즈니스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의 기고문 'Grist: A Strategic Approach to Climate'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국제연합환경계획)는 2009년 4월에 발표한 '글로벌 그린 뉴딜 보고서(A Global Green New Deal)'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해 계획되는 약 2조5,000억 달러 규모 투자의 3분의 1은 세계경제를 녹색화하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제유가의 폭락 등으로 녹색산업 자체가 위기라는 다수의 의견도 있다. 물론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을 꺾는 마당에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는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된 후 급증할 화석연료 수요와 계속 커질 녹색시장을 통찰력 있게 바라본다면 무조건 불황이라고 녹색 분야에 투자를 줄이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격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전세계 주요국에 부는 녹색 바람

세계 여러 연구기관은 각종 환경지표와 녹색활동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08년 12월 독일의 환경 단체인 저먼워치(German Watch)가 조사·발표한 2009년 CCPI(Climatic Change Performance Index 2009: 기후변화성과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대상 국가 56개국 가운데 2008년 온실가스규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유럽과 일부 신흥국이었다. 스웨덴이 가장 잘 이행하는 국가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 영국 순이다. 한국의 경우 2008년 54위에서 13계단 올라간 41위로 조사되었다.

《 2009년 기후변화성과 순위 》

국 가	CCPI 순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전세계 에너지 공급 비중	전세계 GDP 비중	전세계 연구 비중
	2009	(2008)				
독일	5	(5)	2.94%	2.97%	3.92%	1.26%
인도	7	(8)	4.46%	4.82%	6.38%	16.98%
영국	9	(10)	1.92%	1.97%	3.04%	0.93%
한국	41	(54)	1.70%	1.84%	1.76%	0.74%
일본	43	(45)	4.33%	4.49%	6.15%	1.95%
이탈리아	44	(44)	1.60%	1.57%	2.67%	0.90%
중국	49	(43)	20.02%	16.00%	15.09%	20.07%
러시아	54	(53)	5.67%	5.76%	2.56%	2.18%
미국	58	(58)	20.34%	19.77%	19.57%	4.59%
캐나다	59	(56)	1.92%	2.30%	1.77%	0.05%
전체			64.96%	61.49%	62.91%	50.10%

Source : German Watch 2009

세계 속의 한국, 탄소배출국 9위

또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각국의 배출 순위로 미국(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인도(4위), 일본(5위), 독일(6위), 캐나다·영국(공동 7위)이 꼽혔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이어 9위로 조사되었다. 아시아권에서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선정된 것이다. 2013년 포스트코토 체제 이후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이 되면 이런 평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다른 국가들만의 이슈가 아닌 '우리나라, 우리회사, 우리 집의 문제'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는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의 15번째 기후변화협약이다. 본 협약을 통해 향후 미래의 탄소시장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의 불확실성을 보다 명백히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라는 채찍과 녹색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는 '충성 없는 그린전쟁'을 펼치고 있다.

《 탄소규제와 녹색 뉴딜 》



Source : 삼정KPMG 지속가능경영본부

중국과 함께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 1, 2위를 다투는 미국은 최근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투자를 병행하는 그린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80%까지 낮추고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일본은 2008년 6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80% 감축하려는 후쿠다 비전을 선포했다. 이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일본이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강력한 환경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처하고 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2008년 12월 '20-20-20 환경정책패키지'에 합의했다. 2020년까지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며, 에너지사용량을 20% 줄이는 정책이다.

한국의 녹색 정책 및 창출 기회

최근 전세계 선진국은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을 주목했다. UNEP(국제연합환경계획)는 2009년 4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녹색뉴딜정책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경기부양 정책인 동시에 기후 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저탄소 정책의 세계적 표본이라고 일컬었다.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루트사우 또한 한국의 적극적인 친환경 경기부양책을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하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총 50조원 규모를 투자해 4대강 살리기,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등 전체 36개 추진을 통해 총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또한 2018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그린홈을 200만 가구 보급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국내 녹색 뉴딜이라는 정책 하에서 몇 가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녹색 IT 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2009년 5월 녹색 IT제품 신성장동력화(Green of IT), IT기술을 활용한 저탄소사회 전환(Green by IT)을 표어로 내세우고 녹색 IT, 녹색 R&D 분야에 12조5,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총 5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기술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2007년 1조5,000억 달러에서 2020년 5조7,000억 달러로 성장했다. 국내 시장 규모도 연평균 13% 이상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부 산업의 녹색화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녹색시장 규모 》



Source : 녹색성장위원회,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성장', 2009.5.13

녹색 비전의 선진 기업

미래에 지속성장하고 싶은 기업 또한 녹색전략을 잊어서는 안 된다. HSBC의 경우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1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탄소 중립을 최초로 달성한 은행이다. HSBC는 2005년부터 이산화탄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한 탄소를 숲 등의 흡수체로 빨아들여 궁극적으로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세계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각종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필립스(Philips)는 CEO의 강력한 추진 하에 1994년부터 에코비전(Ecovision)이라는 녹색성장 비전을 수립하고 회사 역량과 자원을 녹색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총 매출액의 25%인 60억 유로를 녹색상품(Green Product) 매출에서 올렸다. 2012년까지 그린이노베이션(Green Innovation)에 투자를 증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5% 증대시킬 전략을 내세웠다.

기업의 녹색 비전 사례에 듀폰(DuPont)의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 1802년 화학 업종으로 출발하여 대표적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기업으로 인식되었던 듀폰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 기반의 화학·생명공학회사로 탈바꿈하며 친환경 기업으로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친환경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전략으로 삼았고 1991년 이래로 온실가스배출량을 70% 이상 감축,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을 30억 달러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구온난화 지수를 크게 줄인 에어컨디셔닝 냉매, 농업과 바이오 연료 개발 등 친환경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Siemens)의 사례도 있다. 지멘스는 해상풍력에 집중하기 위해 2003년 해상풍력 발전에서 세계 2위였던 보너스에너지(Bonus Energy)를 3억 유로에 인수하였고, 2007년 1억 유로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멘스는 발전산업과 관련해 유일하게 풍력발전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보너스에너지를 인수하며 원자력은 물론 화력과 풍력발전까지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위에 열거한 국가와 기업의 공통점은 환경을 단순한 환경보호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인식하며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비전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녹색, 그린이다



'Green is Green.'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이 언급한 유명한 말이다. 앞의 그린은 녹색환경을 의미한다. 뒤의 그린은 미국 달러화의 색깔, 즉 돈을 뜻하며 녹색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인류가 구현해야 할 생존 전략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출을 한다면, 그 비용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막대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고, 나중에 미룬다면, 그 때 치려야 할 비용은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사실 환경 변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따라 강화되는 규제를 우려하는 국가와 기업이 있다. 하지만 미래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적 흐름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열한 녹색성장, 녹색경영 성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한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서두에 언급한 녹색 행동강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제는 녹색, 그린이다.'

Energy – 미래를 위한 투자, 에너지 · 자원 확보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아시아 주요국의 움직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M&A 시장 또한 위축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에너지 · 자원 개발 분야이다. 늘 듣는 말이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전세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분야이다.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은 모두 호주, 캐나다, 중남미 등의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아시아 주요 4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자원 M&A 현황 》



Source : Bloomberg

Note : 원의 크기 - M&A 거래액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부터 3년간 에너지 분야 M&A로, 캐나다에 77억 달러를, 호주에 20억 달러, 중남미에 22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에 3억 달러, 호주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도와 일본 역시 매우 활발한 자원 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국영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중국의 해외 자원 확보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국영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원 확보에 있어 정치적인 요소 또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 부국 중 반미 성향의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들에게 중국은 매력적인 투자자이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펼쳤던 8년간의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비집고, 미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중남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자원 개발을 주도하는 중국의 기업으로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 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등 3개 석유회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국영기업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금융 지원과 중국 내 석유 개발 및 생산, 판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지렛대로 삼아 국외의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 지원이나 독점적인 사업권 부여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 참여 기업을 미리 조율, 선정하는 등 내부 경쟁 방지를 위한 조정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국이 전략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자원으로는 석유를 비롯하여 우라늄,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투자하고자 하는 전략 자원 종류와 대부분 일치한다.

일본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일본은 민간 기업 위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이 국가 주도적이라면 일본은 민간 주도라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원조 외교를 통한 자원 확보라는 점에서는 중국과 유사성이 있다. 일본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무상 원조를 한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보유국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원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하는 업체들로는 인펙스(Inpex Holdings)와 신일본석유(Nippon Oil)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마루베니, 소지츠 등 종합상사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종합상사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일본 정부는 자원 보유국들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니즈(Needs)에 따라 수자원 개발, 교육, 의료 등 사회 인프라 관련 각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 협력을 제공하며 민간 부문의 자원 확보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 노력

우리나라 또한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상황에서, 국내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각종 에너지 및 자원 가격이 폭등한 2008년 이후 이러한 자원 개발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자원 수입 물량 중에서 자국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비율, 즉 자주개발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 주요 국가의 원유·가스 해외 의존도 및 자주개발률 》



Source :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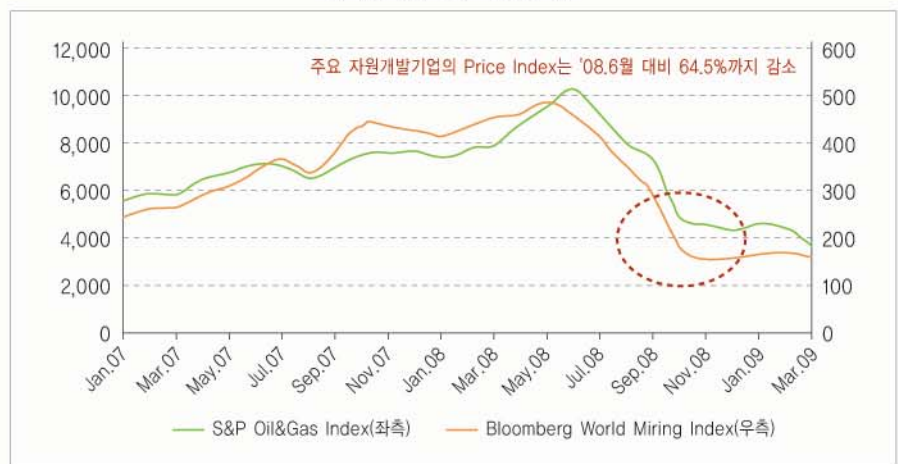
Note : 한국은 2008년, 타 국가는 2006년 기준

에너지와 자원, 식량 등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 자체는 낮추기 어렵더라도 자주개발률만큼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 분야의 시장 동향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당위성은 쉽게 설명될 수 있으나,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는 적절한 투자 시기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파악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자원 기업들의 시장 가치이다. 주요 자원 기업들의 가치는 2008년 6월에 비해 2009년 3월 현재 64.5% 감소하였다.

《 자원 기업 시장 가치 추이 》



Source : Bloomberg

이러한 자원 기업 가치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여도 2009년 3월 현재의 수준은 2006년 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최근 2년 동안 가장 낮은 가격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적으로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 자원 가격의 급락에 의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주요 자원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 관계를 보여 왔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이 주도할 미래에도 기본적인 트렌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이 점차 발달할수록 국제 원자재 가격은 마치 주식 시세처럼 경제성장률에 앞서서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는 미리 준비해야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외 자원 개발 기업의 M&A 추진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검토 절차 외에도 해당 국가의 세제 및 법규 파악, 협상 기간 등을 고려하면 6개월도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미 중국, 일본, 인도 등의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점점 더 준비 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준비는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 기업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

삼성 KPMG 최영대 수석연구원 youngdaechoi@kr.kpmg.com

Upcoming Issues

다음 Issue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PMG Thought Leadership

Financial Services

- Frontiers in Finance - Long road to recovery
- Renewing the Promise: Time to mend relationships in Investment Management

Industrial Markets

- Industrial Perspective on Dealing with a Supplier Risk in Tough Times

Automotive

- Global Dealership Study
- Rough Road II

Consumer Markets

- Consumer Currents 6

Government

- Government IT Success in a Changing World
- Public Sector Responses to the Fiscal Crisis

SAMJONGInsight 2009. Issue 17 (통권 제 17호)

발행인 윤영각 편집인 이창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 파이낸스 센터 10층(135-984)
삼성KPMG 그룹 홈페이지 : www.kr.kpmg.com
Tel. (02)2112-7440
Fax. (02)2112-7441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이창수 원장, 이광열 상무

Financial Services
» 최영대 수석연구원, 목민석 선임연구원, 박영정 연구원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 강환우 책임연구원, 장우석 선임연구원

Industrial Markets
» 윤성빈 책임연구원, 이한별 선임연구원, 김소영 연구원

Consumer Markets
» 이효정 선임연구원, 박소윤 선임연구원

Infrastructure, Government & Health
» 김병락 책임연구원, 류은영 선임연구원, 조진희 연구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자문위원

이 재 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 인 범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평 인 수 | 인하대학교 객원교수

정 기 영 |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SAMJONGInsight

2009. Issue 17 (통권 제 17호)

발행처 삼성KPMG 경제연구원 발행인 윤영각 편집인 이창수 인쇄 · 출력 피오디월드(주)
편집 · 기획 이광열, 최영대, 강환우, 김병락, 윤성빈, 이효정, 류은영, 목민석, 박소윤, 이한별, 장우석, 조진희, 김소영, 박영정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 파이낸스 센터 10층(우편번호 135-984)
삼성KPMG 그룹 홈페이지 www.kr.kpmg.com

© 200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